

# 광양 신선농산물 해외수출 매년 증가

파프리카·애호박 등 지난해 927t...전년보다 5% 늘어  
맛·품질 우수하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효과'

광양시의 신선농산물 해외수출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양시의 농산물 수출량이 927t으로 전년도인 2017년 886t에 비해 5% 증가했다. 주요수출품목을 보면 파프리카, 애호박, 토마토, 깻잎, 산초 등 채소류와 화훼작물로 알스트로메리아 등이다. 주로 일본과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로 수출한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간접물류비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생산자 단체와 영농법인에 대해서도 지원했다.



파프리카

시는 올해 농산물 수출량이 지난해보다 8% 증가한 1000t을 상회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복 광양시 매실원예과장은 "물류비



애호박

지원을 통해 다소나마 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과 수출농업이 확대되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배알도 전경.

(광양시 제공)

## 배알도 전면 개방...새 관광명소로 떠올라

운동주 콘텐츠·체험시설 연계  
문화와 낭만 흐르는 공간 육성

광양시 유일의 '도도(島島)한 섬' 배알도가 빙장을 열고 모습을 공개했다.

백두대간과 섬진강 550리 끝자락인 남해바다와 만나는 곳에 위치한 배알도가 최근 전면 개방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알도는 지난해 8월 배알도수변공원-배알도 해상보도교 준공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지만 3m가 넘는 호안 석축의 추락위험 등으로 출입이 제한됐다.

시는 그동안 정상까지 접근할 수 있는 데크 계단을 설치했으며 상부 수목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이로써 멀리서 바라보지만 했던 배알도는 수변공원을 거쳐 망덕포구의 해안선과 바다를 조망하며 가벼운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됐다.

또 지난 3월 착공한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 마지막 단계인 '배알도-망덕포구' 현수교와 해상보도교가 2021년 완공되면 망덕포구와 수변공원

을 잇는 해상 낭만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8월에는 망덕산에서 배알도수변공원을 잇는 4개 라인의 짙라인 설치 사업을 착공해 내년 2월 매화축제 개막 전까지 마무리하고 축제 방문 관광객을 유인할 계획이다.

이어 카누, 카약, 제트 보트 등 수상레저 관광자원을 다양화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점차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배알도의 상징과 전설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형 배알도 관광특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배알도를 중심으로 운동주와 태인동 김 시식 관련 관광콘텐츠를 적극 도입하고, 제트보트, 짙라인 등 역동적인 체험시설로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통합적 관광수용태세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망덕포구의 운동주 시(詩)거리와 수변공원이 배알도를 중심으로 선으로 연결되면 문화와 낭만이 흐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광양 관광 만들자"

관광마인드 향상 시민 교양강좌

관광산업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는 광양시가 '시민이 먼저 행복하고 관광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성공한다'는 공감대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광양 관광으로!'라는 주제로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마인드 향상 시민 교양강좌가 열렸다.

이번 강좌는 의식업,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관련 업체 종사자뿐만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광

양 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현복 광양시장 인사말에서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섬진강벚길 복원 및 수상레저사업 등 관광사업 3건이 민선7기 핵심 5대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관광은 이러한 인프라를 비롯해 시민의 관심 속에 음식, 숙박, 교통 등 관광객 수용태세를 하나씩 갖추어나가게 중요하다"며 "시민 각자가 손님맞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또 "광양 관광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며 "시가 앞장설 테니 희망과 비전을 갖고 여러분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문화예술·관광도시를 만들어나가자"고 덧붙였다.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광양시도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올해 1월 수립한 민선7기 관광진흥기본계획의 요약자료를 통해 관광시설, 관광수용태세 개선, 신규 축제 이벤트 구상, 홍보 마케팅계획 등 주요 관광로드맵과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또 주요 관광사업 추진상황, 관광관광협업센터 조성 및 관광협의회 구성 운영 계획, 10월 광양관광의 날 운영, 올해의 관광마케터 선정 계획 등 2019년 관광현

안을 설명하며, 시민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했다.

강연자로 나선 배정근 오롯이여행콘텐츠연구소 대표는 "주민 주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중심으로 광양시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시설 중심의 관광정책이 아닌 주민참여 및 주민주도형의 관광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좌에 참여한 한 시민은 "시가 관광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시민과 공감대를 넓히고 시민행복을 우선으로 고려하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며 "시민으로서 시정에 더욱 관심을 갖고 관광객들을 환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세 열 글

#### "광양의 희망찬 도약 위해 온힘 쏟겠다"

김명원 광양시 부시장



"광양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근 18대 광양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김명원 부시장은 "광주-전남 지역 유일의 청림도 1등급 도시이자, 30만 도시 규모에 맞는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광양시에서 부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 책임감이 앞선다"며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시민들의 진심어린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열린 부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부시장은 또 "문화·관광분야에 근

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남해안의 새로운 관광 거점 도시로 희망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담양출신인 김 부시장은 1981년 9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전남문화예술회관 사무처장, 전남도청 관광과장, 정책기획관, 영광군 부군수,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등을 역임했다.

#### "주민밀착형 치안으로 안전 도시 만들 것"

김현식 광양경찰서장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최근 제79대 광양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김현식 서장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곁에 있는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든든한 경찰을 만들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광양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서장은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마음으로 광양 경찰

개개인이 시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치안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진 출신인 김 서장은 1988년 경찰에 입문한 뒤 광주청 정보화장비과장, 구례경찰서장, 전남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광양시 실버차밍 댄스 공연팀,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상

광양시는 지난 14일 열린 '2019년 제15회 IDA 목포 비치컵 오픈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에서 '광양시 실버 차밍댄스 공연팀'이 포메이션 시니어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목포 남약스카이 웨딩컨벤션에서 전국 11개팀 1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2019년 제15회 IDA 목포 비치컵 오픈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에 광양시 차밍댄스 공연팀은 포메이션 시니어부(55-65세 이상)에 참가했다.

광양시 차밍댄스 공연팀은 평균연령 67세 남녀 각각 10명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전국대회에서 라틴 장르 '차차

차'와 '롬바', 자이브 장르 '진포배기' 등 총 3곡을 10분 동안 공연해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 2018년 5월 발대식을 갖은 광양시 실버 차밍댄스 공연팀은 광동동에 연습실을 두고 있으며, 안영미 지도강사와 함께 회원 55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장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U-20 월드컵 국가대표 결승전 길거리 축구 응원전에서도 열린 응원전을 펼쳐 재능기부를 몸소 실천하는 실버 공연팀으로 유명하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